

중2-1
국어
미래엔(신)

2027 중2-1 국어 미래엔(신) | 1(2) 명키 스페너 기출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예상 출제 유형

이 단원에서는 소설의 핵심 요소인 시점에 대해 묻는 문제가 출제됩니다. 「명키 스페너」의 시점인 1인칭 주인공 시점의 특징뿐만 아니라 서술자가 동생 ‘한아’로 바뀌었을 때 작품의 분위기와 내용 전달 방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묻는 문제가 출제됩니다. 또한 ‘나’의 성격과 ‘나’의 심리를 묻는 문제, 「명키 스페너」의 상징적 의미를 묻는 문제도 출제됩니다. 아울러 연계 제재인 「천 개의 파랑」과 관련하여 3인칭 전지적 시점의 효과를 이해하고, 등장인물들의 대조적인 태도를 파악하는 문제도 출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 작품의 시점이 지니는 특성을 확실하게 비교해 두고 세부 내용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팔자 늘어졌구나 싶었다. 엄마 없이 일주일 동안 내 맘대로 살 수 있다니! 다저녁때까지 교복도 안 벗고 소파에서 뒹굴대는 건 평소라면 꿈도 못 꿀 일이다. 게다가 나한테는 현금 10만 원이 든 봉투도 있다. 급한 일 있을 때 쓰라고 엄마가 주고 간 돈이다. (중략)

“언니, 배고파.”

㉠ 옆구리에 흑이 하나 붙어 있기는 했다. ㉡ 나는 얼른 눈을 감고 자는 척했다. 여덟 살쯤 됐으면 밥 정도는 혼자 차려 먹을 수 있는 나이다. 나는 그 나 이 때 내 밥을 알아서 차려 먹은 건 물론이고 우는 아기한테 분유를 타 먹일 줄도 알았다. 내 아기도 아닌 데 내가 우유병 물리고 놀아 주고 다 했다. 그런데 ㉢ 그때 그 갓난쟁이 김한아는 아직도 아기 취급 받으며 세상 편하게 살고 있다.

“한아 가스 불 못 켜게 하고, 칼 못 만지게 하고, 유리컵도 절대 주지 말고.”

엄마는 현관문 나서는 순간까지 한아 걱정을 했다. 냉장고 안에도 한아가 좋아하는 밀반찬들을 꼭

꼭 채워 두었다. 다행히 한아는 밥투정이 없는 편이라 밀반찬에다 달걀이나 하나씩 부쳐 주면 군소리 없이 밥을 잘 먹긴 한다.

(나) 불이 안 들어오는 화장실에 물이 안 내려가는 세면대라니! 일이 점점 더 꼬이고 있었다. 엄마가 집에 오려면 아직 4일이나 남았다.

일단 저녁밥을 먹기로 했다. 냉장고에서 감자조림과 시금치무침을 꺼내고 달걀을 두 개 부쳤다. 구운 김도 꺼내 포장지를 뜯었다. 한아가 식탁을 쓱 훑어 보더니 장조림 담긴 통을 들고 왔다. ㉣ 반찬 아껴 먹어야 한다고 잔소리를 할까 하다가 말았다. 지금은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

(다) 한아는 머리가 제법 길다. 엄마가 몇 번이나 잘라 주려고 하는 걸 내가 못 그러게 막았다. 한아도 이제 학교에 들어갔으니 본격적인 사회생활이 시작된 셈이고, 그렇다면 뭐 한 가지라도 사람들 눈에 띄는 편이 낫다. 안 그러면 애들 속에 묻혀 이도 저도 아닌 인생 시작인데, 한아까지 그렇게 살게 할 수는 없었다. 그래서 나는 아침마다 한아의 긴 머리를 묶거나 땀거나 여기저기 핀을 꽂거나 알록달록 화려한 머리띠를 돌려 주고 있다. ㉤ 애는 집에서 엄청 관리하는 애라고 표시를 해 두는 것이다. (중략)

아무튼 세면대 물이 안 내려가는 이유는 우리 자매가 이토록 긴 머리를 세면대에 거꾸로 쏟아 놓고 샴푸를 짹짹 짜서 구석구석 비벼 감고 행구는 동안 배수구 구멍으로 빠져나간 머리카락들 때문이라고 짐작됐다. 그러니 이를 어찌면 종단 말인가. 밥을 한 그릇 다 먹었는데도 적당한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다. 밥을 한 그릇 더 먹어 보기로 했다.

(라) 한아가 나를 뵈히 올려다봤다.

“언니, 애 어떡해?”

어두워서 다른 건 잘 보이지도 않는데 이상하게 한아 눈동자가 똑똑히 보였다. 두 눈에 근심이 가득 차 있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말했다.

“내일 고칠 거야.”

“누가?”

“언니가.”

“어떻게 고치는지 알아?”

“너 저번에 연필깎이 고장 났을 때 누가 고쳐 줬어?”

내가 고쳐 줬다. 별로 대단치 않은 고장이었다. 연필깎이 뚜껑을 열고 톱니바퀴 사이에 박힌 연필심을 빼낸 뒤 다시 닫으면 되는 일이었다. 한아가 비로소 웃었고, 나는 보란 듯이 양치물을 바닥에 튕 뱉었다. 그리고 진짜로 생각했다. 한번 해 보지, 뭐. 안 되면 말고.

1. 이 글의 ‘나’가 처한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엄마가 여행을 가 며칠 동안 혼자 집을 지키게 되었다.
- ② 넉넉한 용돈을 받아 평소 사고 싶었던 물건들을 모두 샀다.
- ③ 동생 한아를 돌봐야 하는 상황이지만 귀찮아서 방치하고 있다.
- ④ 엄마의 잔소리에서 벗어나 자유를 만끽하며 즐겁게 지내고 있다.
- ⑤ 엄마가 없는 사이 화장실 전등이 나가고 세면대가 막히는 문제가 발생했다.

2. 이 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나’가 자신의 체험을 고백적인 어조로 서술하고 있다.
- ② 서술자가 작품 밖에서 인물의 행동을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있다.
- ③ ‘나’가 관찰자가 되어 주인공인 ‘한아’의 심리를 추측하여 전달한다.
- ④ 전지적 작가가 등장인물 모두의 과거와 현재, 내면 심리를 서술한다.
- ⑤ 서술자가 독자에게 직접 말을 건네며 사건의 해결 방안을 묻고 있다.

3. ㉠~㉣ 중 동생에 대한 ‘나’의 태도가 나머지와 다른 하나는?

- ① ㉠ ② ㉡ ③ ㉢ ④ ㉣ ⑤ ㉤

4. (나)에서 ‘나’가 생각하는 ‘중요한 문제’의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 ① 한아의 반찬 투정을 고치는 것
- ② 떨어져 가는 생활비를 아껴 쓰는 것
- ③ 화장실 전등을 새것으로 교체하는 것
- ④ 꼭 막혀 물이 내려가지 않는 세면대를 뚫는 것
- ⑤ 엄마가 돌아오시기 전까지 집 청소를 마치는 것

5. 이 작품의 시점을 한아로 바꾸었을 때의 변화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기>

- ㄱ. 언니가 생각하는 세면대가 막힌 원인을 독자에게 더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다.
- ㄴ. 언니가 “내일 고칠 거야.”라고 말한 까닭을 자세히 전달하기 어렵다.
- ㄷ. 동생의 시선에서 언니의 말과 행동을 관찰하여 서술하므로 독자가 언니의 의도나 숨겨진 생각을 스스로 상상하며 읽어야 한다.
- ㄹ. 서술자가 작품 밖으로 이동하여 인물들의 행동과 사건을 객관적인 시선으로 관찰하여 서술하게 된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6~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내가 찾는 것은 사장님의 공구 상자 안에 있었다. 신기하게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다. 나는 그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갔다. 그런데 손에 쥐니 생각보다 좀 무거웠다. 할 수 있겠어? 나를 시험하는 것 같아 문득 오기가 생겼다. 손아귀에 힘을 꼭 주고 사장님을 돌아보며 물었다.

“저, 이거 잠깐만 빌려주시면 안 돼요?”

(나) “언니, 애 어떡해?”

어두워서 다른 건 잘 보이지도 않는데 이상하게 한아 눈동자가 똑똑히 보였다. 두 눈에 근심이 가득 차 있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말했다.

“내일 고칠 거야.”

“누가?”

“언니가.”

“어떻게 고치는지 알아?”

“너 저번에 연필깎이 고장 났을 때 누가 고쳐 줬어?” (중략)

㉠ 한아가 비로소 웃었고, 나는 보란 듯이 양치질을 바닥에 튼 뺐었다. 그리고 진짜로 생각했다. 한번 해 보지, 뭐. 안 되면 말고.

나는 이불 속에서 ‘막힌 세면대 뚫는 법’에 관한 동영상 스무 개쯤 찾아봤다. 그리고 마침내 가장 확실해 보이는 방법을 발견했다. 요 정도는 얼추 따라 할 수 있겠다 싶었고, 무엇보다 돈이 전혀 들지 않는다는 점이 마음에 들었다. 그런데 도구가 하나 필요했다. 동영상에 나온 사람이 손에 들고 있는 도구 이름을 알려 줬다. 멍키 스페너. 나는 그걸 어디서 봤는지 금방 기억해 냈다.

(다) “다 했어, 언니.”

세면대가 비었으니 이제 일을 시작할 때다. 작업 순서는 머릿속에 다 있었다. 동영상을 다섯 번쯤 돌려 봤더니 저절로 외워졌다. 일단 구부러진 배수관 양쪽에 조여져 있는 너트를 풀어야 한다. 너트를 꼭 물도록 멍키 스페너의 입 크기를 조절하고 힘주어 왼쪽으로 돌렸다. 한두 번은 좀 뻑뻑하게 돌아갔지만 그 뒤로는 술술 풀렸다. 양쪽 너트가 모두 헐렁해지자 배수관의 구부러진 부분이 통째로 떨어져 나왔다.

“으아악!”

배수관 끝에 검고 축축한 덩어리가 늘어져 있었다. 오래된 늪에서 건져 올린 쓰레기 같았다. 냄새도 지독했다.

“한아야, 나가 있어.”

㉡ 한아가 손가락으로 코를 꼭 짰 채 고개를 도리도리했다. 코딱지만 한 게 그래도 의리가 있다.

“그럼 이거 들고 있어. 여기 잘 보이게.”

핸드폰 플래시를 켜 다음 한아 손에 쥐여 주었다.

(라) ㉢ “틀어? 튼다?”

한아가 수도꼭지를 잡고 자꾸 물었다. 마음이 조마조마한 듯했다. 사실은 나도 그랬다.

싸아아 물이 쏟아졌다. 세면대에 잠깐 차오르던 물이 마개 틈새로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꼬르륵, 꼬르륵. 마지막 물 한 방울까지 싹 내려가고 세면대가 텅 비었다.

“별것도 아니네.”

내가 말했다.

㉣ “별것도 아니네.”

한아가 내 말을 따라 하며 웃었다.

(마) 오랜만에 한아 목욕을 시켰다. 구석구석 비누칠도 하고 머리도 감겼다. 머리 위에 불빛이 환했고 샤워기 물도 따듯했다. 한아가 세면대를 손으로 짚고 서서 ㉤ “아, 좋다.” 했다. 잘 닦아 놓은 세면대가 하얗고 단단하게 반짝였다.

우리는 젖은 머리를 길게 늘어뜨리고 식탁에 밥을 차렸다. 우리가 좋아하는 반찬들을 모조리 다 꺼내 놓았다. 엄마가 있을 때도 토요일 저녁밥은 특별하게 차려 먹었다.

나는 유리컵 두 개에 오렌지주스를 따랐다. 엄마는 한아한테 유리컵 주지 말라고, 깨뜨리면 다친다고 했지만 그렇다고 언제까지나 플라스틱 컵만 쓰게 할 수는 없다.

“두 손으로 꼭 쥐어.”

주스는 유리컵에 마셔야 더 맛있고 더 멋있다. 한아도 이 맛과 멋을 누릴 자격이 있다. 우리는 책 소리 나게 건배하고 주스를 마셨다.

6. (가)~(마)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 멍키 스패너의 무게감을 느끼며 ‘나’는 묘한 오기와 도전 의식을 느꼈다.
- ② (나): ‘나’는 한아를 안심시키기 위해 얼떨결에 자신이 고치겠다고 말해 버렸다.
- ③ (다): 동영상에서 본 것과 달리 예상치 못한 이물질이 나와 당황했다.
- ④ (라): 작업을 마치고 물이 잘 내려가는 것을 확인하며 ‘나’는 성취감을 느꼈다.
- ⑤ (마): 문제를 해결한 후 한아와 함께 주스를 마시며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다.

7. ㉠~㉣ 중 한아의 심리 상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언니가 고쳐 준다는 말에 안도감을 느꼈다.
- ② ㉡: 언니를 혼자 두고 나가고 싶지 않은 의리를 보여 준다.
- ③ ㉢: 세면대가 제대로 고쳐졌을지 걱정되고 긴장된다.
- ④ ㉣: 언니의 성공을 비꼬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
- ⑤ ㉤: 깨끗해진 세면대와 따뜻한 물에 만족감과 행복을 느낀다.

8. 이 글의 사건 전개 과정을 시간 순서대로 바르게 배열한 것은?

- ① 자전거 가게 방문 → 동영상 검색 → 세면대 수리 → 오렌지 주스 건배
- ② 동영상 검색 → 자전거 가게 방문 → 세면대 수리 → 오렌지 주스 건배
- ③ 세면대 수리 → 동영상 검색 → 자전거 가게 방문 → 오렌지 주스 건배
- ④ 동영상 검색 → 세면대 수리 → 자전거 가게 방문 → 오렌지 주스 건배
- ⑤ 자전거 가게 방문 → 세면대 수리 → 동영상 검색 → 오렌지 주스 건배

9. 모든 문제를 해결한 후 (마)에서 ‘나’가 느낀 감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엄마가 돌아오시면 혼날까 봐 걱정된다.
- ② 돈을 아끼지 않고 펄펄 쓴 것에 대해 후회한다.
- ③ 동생에게 힘든 일을 시킨 것에 대해 미안함을 느낀다.
- ④ 스스로 문제를 해결했다는 사실에 뿌듯함과 자신감을 느낀다.
- ⑤ 별것도 아닌 일에 겁을 먹었던 자신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낀다.

【10~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엄마 없이 일주일 동안 내 맘대로 살 수 있다니! 다저녁때까지 교복도 안 벗고 소파에서 뒹굴대는 건 평소라면 꿈도 못 꿀 일이다. 게다가 한한테는 현금 10만 원이 든 봉투도 있다. 급한 일 있을 때 쓰라고 엄마가 주고 간 돈이다. (중략)

화장실 앞에 서서 물었다. 한아가 세면대 앞에서 손을 어정쩡하게 들고 나를 돌아봤다. 세면대 안에는 비누 거품 뚱뚱 물이 넘칠 듯 차 있었다.

“물이 안 내려가.”

나는 한아한테 비키라 하고 뿌연 물속에 손을 담가 배수구 마개를 찾았다. 동전같이 생긴 마개를 누르면 배수구 구멍으로 마개가 쏙 들어가 물이 안 빠지게 막아 주고, 다시 한번 누르면 도로 튀어 올라와 벌어진 틈새로 물이 빠지게 된다. 한아가 손을 씻다가 자기도 모르게 마개를 누른 모양이다.

(나) 나는 엄마가 주고 간 돈을 좀 쓰더라도 세면대를 뚫기로 했다.

“대충 얼마쯤 해요?”

비싸 봤자 얼마나 비싸겠느냐고 혈령하게 생각한 것 같다. 코앞에 있는 아파트에 와서 고작 머리카락 좀 빼 주는 일이었다. 그런데 할머니 말을 듣고 뒤로 넘어갈 뻔했다. 한성 설비 사장님은 이것저것 못 고치는 게 없는 기술자라서 어디든 한 번 방문할 때마다 기본 출장비가 5만 원이라고 했다. 아직 출장비를 낸 것도 아닌데 피 같은 돈을 왕창 뜯긴 기분이 들었다. 누굴 호구로 아냐? 얼굴을 찌푸리자 할머니가 대뜸 나무라는 소리를 했다.

“그 정도 값도 안 내고 사람을 부르려고? 비싼 물건들은 척척 사면서 일하는 사람한테 주는 돈은 왜들 그렇게 아까워하는지.”

할머니 말도 틀린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고개를 끄덕일 수도 없었다. 돈이 많다면야 5만 원이든 얼마든 순순히 낼 수 있겠지만 내 형편이 그렇지 않은 걸 어떡하나. 전 재산의 절반을 털어 세면대를 뚫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다) 계단 밑 유리문 위에 붉은 글자가 보였다. 찾았다, 관리 사무소.

문을 밀고 들어가니, 회색 점퍼를 입은 아저씨가 소파에 앉아 있었다.

“무슨 일로 왔니?”

아저씨가 물었다.

“저희 집에 뭐가 고장 나서요.”

나는 사실대로 얘기할 참이었다. 세면대가요, 어제부터 물이 안 내려가서요.

아저씨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고장 났어? 뭐가?”

사실대로 말을 하되 아주 약간만 가여운 척하려고 했다. 저희 엄마가요, 지금 어디 가서서 집에 저랑 동생밖에 없는데요, 저희가 며칠 동안 계속 씻지를 못해서요.

아저씨가 내 쪽으로 다가왔다.

“몇 동 몇 호인데?”

나도 모르게 침을 꿀꺽 삼켰다. 엄마는 나를 붙잡고 여러 번 얘기했다. 집에 오면 보조 걸쇠까지 다 잠그고 있으라고, 누가 와서 벨을 눌러도 문 열어 주지 말라고, “누구세요?” 묻지도 말고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그리고 어디 가서 집에 엄마 없다는 말 절대 하지 말라고. (중략)

나는 유리문을 열고 계단을 뛰어 올라갔다.

(라) 길 건너에 자전거 가게가 보였다. 다행히 문이 열려 있었다. 사장님이 자전거 바퀴에 바람을 넣다 말고 우리에게 알은체를 했다. 우리는 자전거를 다 여기서 샀고, 한아 자전거에 붙어 있던 보조 바퀴도 여기 와서 뺐다. 사장님이 조임쇠를 풀어 양쪽 보조 바퀴 떼는 모습을 바로 옆에서 전부 지켜봤다.

내가 찾는 것은 사장님의 공구 상자 안에 있었다. 신기하게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다. 나는 그쪽으로 성큼성큼 걸어갔다. 그런데 손에 쥐니 생각보다 좀 무거웠다. 할 수 있겠어? 나를 시험하는 것 같아 문득 오기가 생겼다. 손아귀에 힘을 꽉 주고 사장님을 돌아보며 물었다.

“저, 이거 잠깐만 빌려주시면 안 돼요?”

(마) 어두워서 다른 건 잘 보이지도 않는데 이상하게 한아 눈동자가 똑똑히 보였다. 두 눈에 근심이 가득 차 있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말했다.

“내일 고칠 거야.”

“누가?”

“언니가.”

“어떻게 고치는지 알아?”

“너 저번에 연필깎이 고장 났을 때 누가 고쳐 줬

어?”

내가 고쳐 줬다. 별로 대단치 않은 고장이었다. 언필ippi가 뚜껑을 열고 톱니바퀴 사이에 박힌 언필심을 빼낸 뒤 다시 닫으면 되는 일이었다. 한아가 비로소 웃었고, 나는 보란 듯이 양치질을 바닥에 뒹 뺐었다. 그리고 진짜로 생각했다. 한번 해 보지, 뭐. 안 되면 말고.

나는 이불 속에서 ‘막힌 세면대 뚫는 법’에 관한 동영상을 스무 개쯤 찾아봤다. 그리고 마침내 가장 확실해 보이는 방법을 발견했다. 요 정도는 얼추 따라 할 수 있겠다 싶었고, 무엇보다 돈이 전혀 들지 않는다는 점이 마음에 들었다. 그런데 도구가 하나 필요했다. 동영상에 나온 사람이 손에 들고 있는 도구 이름을 알려 줬다. 멍키 스페너. 나는 그걸 어디서 봤는지 금방 기억해 냈다.

(바) “알았어. 근데 엄마, 나 엄마가 준 돈으로 뭐 하나만 사도 돼?”

“뭐?”

“그냥 갖고 싶은 거 있어서. 만 오천 원이야. 너무 비싸?”

“아니야. 사고 싶은 거 사. 밥 잘 챙겨 먹고.”

전화를 끊고 누워서 오른쪽 손바닥을 폈다. 멍키 스페너를 꼭 쥐었을 때의 느낌이 아직도 생생했다. 내 손아귀의 힘이 스페너를 통과하면서 몇 배로 커지는 느낌이었다. 스페너를 쥐 내 손이 단단히 조여져 도무지 풀릴 것 같지 않던 너트를 거뜬히 움직였고, 나는 그런 내 모습이 마음에 들었다. 어떤 일에도 호들갑 떨지 않고 상대의 심장을 쿡쿡 찌르는 말을 내뱉는 사람은 되지 못했지만, 스페너를 손에 쥐고 고장 난 것들을 스스로 척척 고치는 사람은 될 수 있을 것 같았다.

(사) “할머니, 이거 얼마예요?”

“뭐? 그거는 만 오천 원.”

나는 초록색 손잡이 스페너를 만지작대다가 도로 걸어 두었다.

옆에서 싹싹 숨 쉬는 소리가 들렸다. 한아는 저녁 밥을 먹자마자 잠이 들었다. 나도 잠이 쏟아졌다. 일어나 불을 끄고 다시 누웠다. 우리는 엄마 없는 다섯 번째 밤을 보내는 중이고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와 있었다.

잘했어, 김한경.

나는 눈을 감은 채 혼자 웃었다. 엄마가 오려면 이제 이틀 남았다.

10. 이 작품의 시점을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설정하여 얻을 수 있는 효과는?

- ① 주인공의 내면 심리 변화를 섬세하게 보여 준다.
- ② 사건을 객관적으로 전달하여 독자의 공정한 판단을 돕는다.
- ③ 주인공을 관찰하는 주변 인물의 시각을 통해 긴장감을 조성한다.
- ④ 서술자가 모든 인물의 속마음을 다 알고 있어 사건 이해가 빠르다.
- ⑤ 작가가 작품 밖에서 교훈적인 메시지를 직접적으로 전달하기 좋다.

11. 이 소설을 통해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이웃 간의 소통과 나눔의 중요성
- ② 청소년기 자매간의 갈등과 화해
- ③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교훈
- ④ 부모님의 부재가 자녀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
- 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얻는 성취감과 성장

12. ‘멍키 스페너’가 ‘나’에게 갖는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엄마의 부재를 느끼게 하는 슬픔의 소재
- ② 동생과의 갈등을 유발하는 불화의 원인
- ③ 자신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해 준 성장의 도구
- ④ 어른들의 세계에 진입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는 좌절의 벽
- ⑤ 타인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증거

13. (라)에서 '나'가 멍키 스패너를 손에 쥐었을 때 무겁다고 느끼면서도 '오기'가 생긴 이유는?

- ① 사장님이 빌려주지 않을 것 같아 화가 났기 때문에
- ② 도구가 너무 무거워서 고칠 수 없을 것 같아 겁이 났기 때문에
- ③ 멍키 스패너가 자신을 시험하는 것 같아 도전 의식이 생겼기 때문에
- ④ 생각보다 비싼 물건이라 잃어버릴까 봐 걱정되었기 때문에
- ⑤ 한아 앞에서 힘센 척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14~1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엄마 없이 일주일 동안 내 맘대로 살 수 있다니! 다저녁때까지 교복도 안 벗고 소파에서 뒹굴대는 건 평소라면 꿈도 못 꿀 일이다. 게다가 나한테는 현금 10만 원이 든 봉투도 있다. 급한 일 있을 때 쓰라고 엄마가 주고 간 돈이다.

나중에 돈 생기면 사야지 했던 것들이 줄줄이 눈앞을 지나갔다. (중략) 하지만 이제 가격표 따위 거들떠보지 않아도 된다. 눈 돌아가게 비싼 과자를 아침저녁으로 사 먹어도 돈이 남을 판이다.

(나) 한아가 이마를 찡그렸다. 나는 한아가 손을 마저 헹굴 수 있게 샤워기 물을 틀었다. 한아가 화장실 바닥에 쪼그려 앉아 손을 비벼 씻었다. 불이 안 들어오는 화장실에 물이 안 내려가는 세면대라니! 일이 점점 더 꼬이고 있었다. 엄마가 집에 오려면 아직 4일이나 남았다.

(다) 토요일 아침이라 그런지 공원 길이 한산했다. 평소라면 학교 가는 애들로 북적일 시간이었다. 자전거 속도를 좀 늦추고 뒤를 돌아봤다. 한아가 부지런히 페달을 구르며 쫓아오고 있었다.

“거의 다 왔어.”

길 건너에 자전거 가게가 보였다. 다행히 문이 열려 있었다. (중략)

내가 찾는 것은 사장님의 공구 상자 안에 있었다. 신기하게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다. 나는 그쪽으로 성큼성큼 걸어갔다. 그런데 손에 쥐니 생각보다 좀 무거웠다. 할 수 있겠어? 나를 시험하는 것 같아 문득 오기가 생겼다. 손아귀에 힘을 꽉 주고 사장님을 돌아보며 물었다.

“저, 이거 잠깐만 빌려주시면 안 돼요?”

(라) 어젯밤 양치질을 하는데 한아가 칫솔을 입에 문 채 세면대를 계속 힐끔거렸다. 세면대에는 여전히 물이 넘실대고 있었다. 하루 종일 화장실을 왔다 갔다 하며 물이 빠졌나 들여다봤지만 거의 달라지지 않았다. 한아가 나를 빤히 올려다봤다.

“언니, 애 어떡해?”

어두워서 다른 건 잘 보이지도 않는데 이상하게 한아 눈동자가 똑똑히 보였다. 두 눈에 근심이 가득 차 있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말했다.

“내일 고칠 거야.”

“누가?”

“언니가.”

(마) 나는 이불 속에서 ‘막힌 세면대 뚫는 법’에 관한 동영상을 스무 개쯤 찾아봤다. 그리고 마침내 가장 확실해 보이는 방법을 발견했다. 요 정도는 얼추 따라 할 수 있겠다 싶었고, 무엇보다 돈이 전혀 들지 않는다는 점이 마음에 들었다. 그런데 도구가 하나 필요했다. 동영상에 나온 사람이 손에 들고 있는 도구 이름을 알려 줬다. 멍키 스페너. 나는 그걸 어디서 봤는지 금방 기억해 냈다.

(바) 작업 순서는 머릿속에 다 있었다. 동영상을 다섯 번쯤 돌려 봤더니 저절로 외워졌다. 일단 구부러진 배수관 양쪽에 조여져 있는 너트를 풀어야 한다. 너트를 꼭 물도록 멍키 스페너의 입 크기를 조절하고 힘주어 왼쪽으로 돌렸다. 한두 번은 좀 뻑뻑하게 돌아갔지만 그 뒤로는 술술 풀렸다. 양쪽 너트가 모두 헐렁해지자 배수관의 구부러진 부분이 통째로 떨어져 나왔다.

“으아악!”

배수관 끝에 검고 축축한 덩어리가 늘어서 있었다. 오래된 늪에서 건져 올린 쓰레기 같았다. 냄새도 지독했다.

“한아야, 나가 있어.”

한아가 손가락으로 코를 꼭 쥔 채 고개를 도리도리했다. 코딱지만 한 게 그래도 의리가 있다.

“그럼 이거 들고 있어. 여기 잘 보이게.”

핸드폰 플래시를 켜 다음 한아 손에 쥐여 주었다.

14. 이 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나’가 겪은 사건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순차적으로만 서술하고 있다.
- ② 과거와 현재를 오가는 구성을 통해 사건의 인과 관계를 드러낸다.
- ③ 3인칭 관찰자 시점을 사용하여 사건을 객관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 ④ 서술자를 교체하여 동일한 사건을 여러 각도에서 조명하고 있다.
- ⑤ 인물 간의 대화를 배제하고 서술자의 독백만으로 내용을 전개한다.

15. (바)에서 ‘한아’의 행동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로 적절한 것은?

- ① 냄새가 나서 도망가고 싶어 하지만 언니가 붙잡아 억지로 있다.
- ② 언니를 혼자 두지 않으려는 의리를 보이며 문제 해결을 돕는다.
- ③ 세면대를 고치는 과정이 너무 재미있어서 호기심을 보이고 있다.
- ④ 언니가 실수할까 봐 불안해하며 감시하고 있다.
- ⑤ 핸드폰 플래시를 비추는 일이 귀찮아서 억지로 하고 있다.

16. 이 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나’의 성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순간의 기분에 이끌려 즉흥적이고 감정적으로 행동하는 성격이다.
- ② 사전에 꼼꼼하게 알아보고 치밀하게 대비하는 준비성이 철저한 성격이다.
- ③ 어려운 일이 생기면 스스로 해결하기보다 남에게 의지하기를 좋아하는 성격이다.
- ④ 다른 사람의 충고를 귀담아듣지 않고 자신의 생각만을 고집하는 성격이다.
- ⑤ 문제 상황에 닥쳤을 때 매사에 비관적으로 생각하며 쉽게 포기하는 성격이다.

정답 및 해설

1. [정답] ⑤

‘나’는 엄마가 일주일 동안 집을 비운 사이, 화장실 전등불이 나가고 세면대가 막히는 연이은 문제 상황에 직면해 있다.

- ① 혼자가 아니라 동생 한아와 함께 있게 되었으며, 엄마가 여행을 간 것인지는 제시된 지문을 통해 확인할 수 없다.
- ② 넉넉한 용돈을 받은 것은 맞지만, 평소 사고 싶었던 물건들을 모두 사지는 않았다.
- ③ 귀찮아하면서도 밥을 챙겨주는 등 동생을 잘 돌보고 있다.
- ④ 처음에는 자유를 느꼈으나 곧 발생한 문제들로 인해 곤란해하고 있다.

2. [정답] ①

이 글은 ‘나’가 작품 속 주인공으로서 자신의 체험과 내면 심리를 독자에게 직접 고백하듯 서술하는 1인칭 주인공 시점의 소설이다.

- ② 서술자가 작품 밖에서 관찰하는 것은 3인칭 관찰자 시점이다.
- ③ ‘나’가 주인공이므로 1인칭 관찰자 시점이 아니다.
- ④ 전지적 작가 시점에 대한 설명이다.
- ⑤ 독자에게 말을 거는 듯한 구어체 문장을 사용하지만, 독자에게 직접 해결 방안을 묻는 형식은 아니다.

3. [정답] ⑤

㉞은 동생이 밖에서 기죽지 않도록 세심하게 챙기는 ‘나’의 애정과 배려가 담긴 행동이다.

- ①, ②, ③, ④ 나머지는 모두 동생을 귀찮은 존재로 여기거나 아기 취급을 하고 있는 ‘나’의 태도가 드러나 있다.

4. [정답] ④

‘나’는 반찬을 아껴 먹어야 한다는 잔소리보다 당장 짹 막혀 물이 내려가지 않는 세면대 문제를 해결하

는 것이 훨씬 더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 ①, ②, ③, ⑤ 나머지는 모두 ‘나’가 생각하는 ‘더 중요한 문제’에 해당하지 않는다.

5. [정답] ③

ㄴ, ㄷ. 작품의 서술자를 동생인 ‘한아’로 바꾸면 소설 속 등장인물인 한아가 언니(‘나’)의 말과 행동을 관찰하여 이야기를 전달하는 1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바뀐다. 따라서 언니가 내면적으로 겪는 고민이나 의도 등은 직접 알 수 없으며 겉으로 드러난 표정이나 행동을 통해서만 짐작할 수 있다.

ㄱ. 한아가 서술자가 되면 언니의 내면 심리를 직접 알 수 없으므로 정확하게 전달할 수 없고, 언니의 행동을 보고 짐작한 대로 전달할 수밖에 없다.

ㄹ. 동생인 한아 역시 소설 속에 등장하는 인물이므로 서술자가 작품 밖으로 이동하는 3인칭 시점이 아니라 소설 속에 인물로 등장하는 1인칭 시점에 해당한다.

6. [정답] ③

(다)에서 배수관을 뜯었을 때 검고 축축한 덩어리가 나온 것은 당황스럽고 냄새나는 일이었지만, 이는 ‘나’가 이미 긴 머리카락 때문에 막혔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 ① 묵직한 공구를 쥐고 ‘할 수 있겠어?’라고 스스로 묻는 과정에서 오기가 생겼다.
- ② 동생의 걱정하는 눈빛을 보고 자기도 모르게 내일 고치겠다고 내뱉었다.
- ④ 물이 쑥 빠지는 것을 보고 속이 뻥 뚫리는 듯한 성취감을 느꼈다.
- ⑤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주스를 마시며 자축했다.

7. [정답] ④

㉞에서 한아가 “별것도 아니네.”라고 언니의 말을 따라 하며 웃는 것은 언니를 비꼬거나 무시하는 것이 아니다. 문제가 해결된 상황에 대한 안도감, 언니가 해냈다는 것에 대한 믿음, 그리고 옆에서 도운 자신도 함께했다는 뿌듯함을 공유하는 행동이다.

- ① 언니가 해결해 주길 바라는 믿음과 기대감을 보여 준다.

- ② 냄새가 나도 나가지 않고 자리를 지키며 언니를 돕고자 하는 의리이다.
- ③ 물이 잘 내려갈지 기대 반 걱정 반으로 지켜보는 심리이다.
- ⑤ 깨끗해진 세면대를 보며 문제 해결의 기쁨을 느끼고 있다.

8. **정답** ②

사건의 시간적 순서는 다음과 같다.

- (나) 동생의 걱정을 보고 고치기로 결심한 뒤, 동영상 찾아보고 멍키 스페너가 필요함을 알게 됨.
 - (가) 자전거 가게에 가서 멍키 스페너를 빌림.
 - (다) 집에 돌아와 동영상대로 배수관을 분해하고 머리카락을 제거함.
 - (라) 다시 조립한 후 물을 틀어 잘 내려가는지 확인함.
 - (마) 한아를 씻기고 주스를 마시며 마무리함.
- 따라서 이 글의 사건 전개 과정을 시간 순서대로 배열하면 '동영상 검색 → 자전거 가게 방문 → 세면대 수리 → 오렌지 주스 건배'이다.

9. **정답** ④

'나'는 멍키 스페너를 사용하여 전문가(어른)의 도움 없이 스스로 세면대와 전등 문제를 해결했다. 이 과정 끝에 "별것도 아니네"라고 말하며 큰 성취감과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느끼게 되었다.

- ①, ②, ③, ⑤ 나머지는 모두 '나'가 느낀 감정으로 적절하지 않다.

10. **정답** ①

1인칭 주인공 시점은 주인공인 '나'가 자신의 속마음을 직접 서술하기 때문에, 인물의 내면 심리 변화 성격, 성장 과정을 독자에게 가장 생생하고 섬세하게 전달할 수 있다.

- ②, ③ 관찰자 시점에 대한 설명이다.
- ④ 전지적 작가 시점에 대한 설명이다.
- ⑤ 작가가 개입하는 전지적 작가 시점에 가깝다.

11. **정답** ⑤

이 소설은 청소년인 주인공 '나'가 부모님의 부재라는 문제 상황 속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며 자신감을 얻고 내면적으로 한 뼘 더 성장

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 ①, ②, ③, ④ 작품의 부분적인 소재나 상황일 뿐,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주제는 아니다.

12. **정답** ③

'멍키 스페너'는 꼭 조여져 있어 '나'의 힘으로는 풀 수 없었던 너트를 풀게 해 준 도구이다. 상징적으로는 어른들의 세계나 해결하기 힘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게 해 준 매개체이자, 이를 통해 자신감을 얻게 해 준 성장의 도구를 의미한다.

- ①, ②, ④, ⑤ 나머지는 모두 '멍키 스페너'의 의미로 적절하지 않다.

13. **정답** ③

'나'는 멍키 스페너의 묵직한 무게감을 느끼며 이 일이 쉽지 않을 것임을 직감한다. 그러나 동시에 그 무게감이 마치 "너, 이거 할 수 있겠어?"라고 자신을 시험하는 것처럼 느껴져, 지기 싫은 오기와 도전 의식을 갖게 되었다.

- ①, ②, ④, ⑤ 나머지는 모두 '나'가 느낀 감정으로 적절하지 않다.

14. **정답** ②

이 글은 시간의 흐름이 순차적이지 않다. (다)는 '토요일 아침'에 자전거 가게에 간 현재 상황이고, (라)와 (마)는 그보다 앞선 '어젯밤'의 일을 회상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과거(어젯밤의 결심과 검색)와 현재(토요일 아침의 실행)를 오가는 입체적 구성을 통해 '나'가 자전거 가게에 가게 된 이유(인과 관계)를 보여 준다.

- ① (가)~(바)를 사건이 일어난 시간의 순서대로 나열하면, (가)-(나)-(라)-(마)-(다)-(바)이다. 따라서 이 작품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순차적으로 서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를 오가는 구성으로 서술하고 있다.

③ 이 작품은 '나'가 자신의 심리를 서술하는 1인칭 주인공 시점이다.

④ 이 작품에서 서술자의 교체는 확인할 수 없다.

⑤ 이 작품은 인물 간의 대화와 서술자의 독백을 통해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

15. **정답** ②

(바)에서 한아는 악취가 나는데도 고개를 도리도리 하며 나가지 않고 자리를 지켰다. ‘나’는 이를 두고 ‘코딱지만 한 게 그래도 의리가 있다’고 생각했다. 이후 한아는 핸드폰 플래시를 비춰주며 언니를 돕는다.

- ① 언니가 나가 있으라고 했지만 한아가 거절했다.
- ③, ④, ⑤ (바)에서 확인할 수 없는 내용이다.

16. 정답 ②

(마)에서 ‘막힌 세면대 뚫는 법’에 관한 동영상은 스무 개쯤 찾아보고, (바)에서 작업 순서를 머릿속에 다 넣을 때까지 동영상을 다섯 번쯤 돌려 본 후 수리 작업을 시작하는 행동을 통해 ‘나’가 꼼꼼하고 치밀하며 준비성이 철저한 성격임을 알 수 있다.

- ① ‘나’는 문제를 직면했을 때 동영상을 여러 번 보며 방법을 숙지하는 등 계획적이고 신중하게 행동하고 있으므로 즉흥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 ③ ‘나’는 막힌 세면대를 스스로 고치기로 마음먹고 동생에게 큰소리친 후, 도구를 빌려 직접 해결하려고 하므로 남에게 의지하는 성격이 아니다.
- ④ ‘나’가 타인의 충고를 무시하거나 자신의 의견만을 고집하는 모습이 나타나 있지 않다.
- ⑤ 화장실 전등불이 나가고 세면대가 막히는 문제 상황에 처했으나, 이를 포기하지 않고 스스로 해결할 방법을 찾아 실행에 옮기는 모습에서 비관적이거나 쉽게 포기하는 성격이 아님을 알 수 있다.